

2009년 임금동향과 2010년 전망

강 승 복*

I. 2009년 임금동향 개관

1. 2009년 명목임금, 0.7% 하락

2009년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622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0.7% 하락하였다(표 1 참조).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의 임금총액은 0.5% 하락하였는데 정액급여 상승률은 0.6% 상승한 반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하락폭이 커 각각 -4.1%, -4.2%를 기록하였다.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2.9%를 기록하여 상용직 근로자보다 크게 하락하였으나 감소폭은 전년인 2008년보다 둔화되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09년 실질임금은 전년인 2008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여 -3.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 나타난 2009년도 월평균 임금총액은 1,852천 원으로 전년대비 0.3% 상승하였다. 월평균 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한 실질임금은 2.4% 하락하여 2008년의 1.0% 상승에 비해 하락폭이 높게 나타났다.¹⁾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angsb@kli.re.kr).

1) 통계청 조사는 근로자 규모 1인 이상의 상용·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임금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동부 조사는 근로자 규모 5인 이상의 상용직 중심의 조사이므로 임금상승률 수치의 차이가 발생한다. 2009년 통계청 조사의 임금상승률이 노동부 조사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통계청 조사는 상용·임시·일용직 등 모든 임금근로자를 포괄하고 있어 경기침체에 일용직 등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여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이른바 ‘고용구성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II장의 제4항 상용직 비중의 증가로 평균임금의 급격한 하락’에서 서술하겠다.

<표 1> 임금관련 지표 추이

(단위: 천 원/월,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노동부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	-	-	2,561 (-)	2,640 (3.1)	2,622 (-0.7)
		실질임금 증가율	-	-	-	-	-1.5	-3.4
	상용직	임금총액	2,255 (6.0)	2,404 (6.6)	2,542 (5.7)	2,683 (5.6)	2,810 (3.4)	2,795 (-0.5)
		정액급여	1,636 (6.8)	1,756 (7.4)	1,874 (6.7)	1,992 (6.3)	2,154 (6.3)	2,166 (0.6)
		초과급여	137 (1.7)	149 (8.7)	158 (5.4)	166 (5.5)	163 (-1.1)	156 (-4.1)
		특별급여	482 (4.6)	499 (3.5)	511 (2.4)	526 (2.9)	493 (-6.2)	472 (-4.2)
	실질임금 증가율	2.3	3.8	3.4	2.9	-1.2	-3.3	
비상용직	임금총액	-	-	-	904 (-)	855 (-5.5)	830 (-2.9)	
통계청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1,542 (5.2)	1,593 (3.3)	1,656 (3.9)	1,745 (5.4)	1,846 (5.8)	1,852 (0.3)
		실질임금 증가율	1.5	0.5	1.7	2.8	1.0	-2.4
노동부	근로시간 (월)	전체 근로자	-	-	-	174.2 (-)	171.4 (-1.6)	172.8 (0.8)
		상용직	197.2 (-0.5)	195.1 (-1.1)	191.2 (-2.0)	180.0 (-1.5)	177.8 (-1.2)	179.7 (1.1)
통계청	소비자물가 증가율		3.6	2.8	2.2	2.5	4.7	2.8
한국은행	GDP 증가율		3.0	1.9	2.2	3.2	2.9	3.4

주: 1) 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는 상용직을 조사대상으로 하던 『매월노동통계조사』를 2007년도부터 전체 근로자로 확장한 것임.

2) 임금자료 중 노동부 자료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통계청 자료는 전체 근로자가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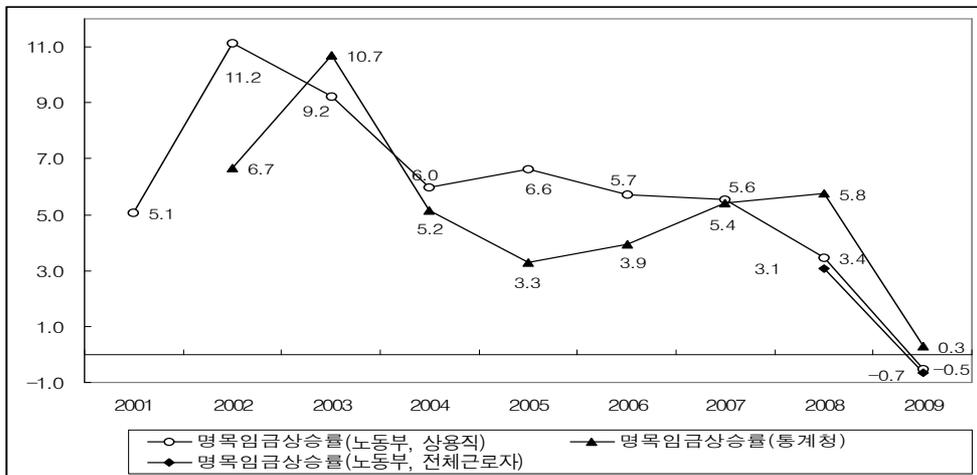
3)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년도.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주: 노동부 자료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년도.

2.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따라 임금상승률도 둔화

‘명목임금 상승률’과 명목GDP를 취업자수로 나눈 ‘명목노동생산성 상승률’ 추이를 보면, 대체로 명목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2007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은 모두 전년대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 (표 2 참조).

2009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취업자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DP 증가율이 대폭 둔화됨에 따라 3.9% 증가에 그쳤으며 명목임금(상용직) 상승률은 전년의 3.4%보다 대폭 하락하여 0.5% 감소하였다.

한편 노동부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노동생산성을 구성하는 GDP와 취업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집계되는 것이므로 비교 대상이 엄밀하게 동일하지는 않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집계시 발표되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을 참고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의 ‘피용자보수 증가율’을 보면, ‘명목임금 상승률’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동 방향에 따라 조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09년 피용자보수는 3.2% 증가하여 명목임금과 마찬가지로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상승률 또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동일하게 수렴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생산성

<표 2> 명목임금 상승률 및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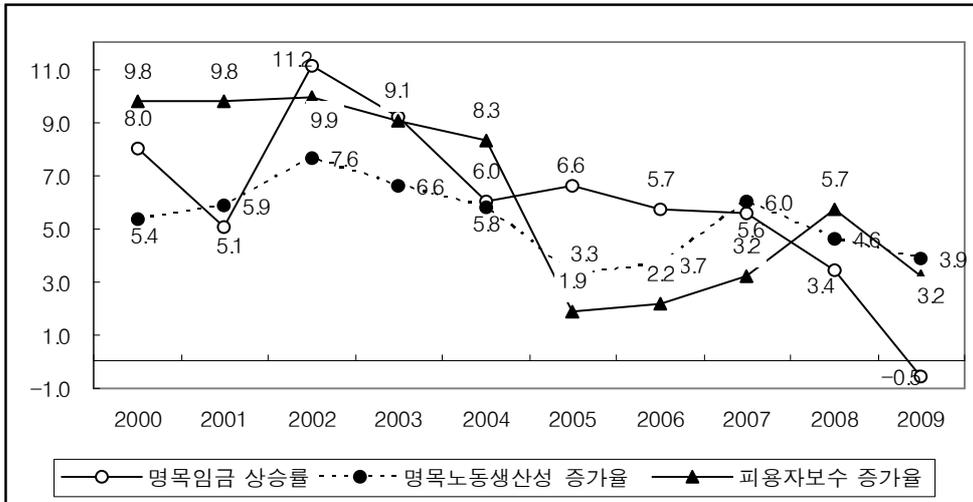
(단위: %)

	명목임금 상승률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			피용자보수 증가율	노동소득 분배율
		명목 GDP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2000	8.0	5.4	9.9	4.3	9.8	58.1
2001	5.1	5.9	8.0	2.0	9.8	58.8
2002	11.2	7.6	10.6	2.8	9.9	58.0
2003	9.2	6.6	6.5	-0.1	9.1	59.2
2004	6.0	5.8	7.8	1.9	8.3	58.7
2005	6.6	3.3	4.6	1.3	1.9	60.7
2006	5.7	3.7	5.0	1.3	2.2	61.3
2007	5.6	6.0	7.3	1.2	3.2	61.1
2008	3.4	4.6	5.3	0.6	5.7	61.0
2009	-0.5	3.9	3.6	-0.3	3.2	60.6

주: 시계열 유지를 위해 명목임금 상승률은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그림 2] 명목임금 상승률 · 명목노동생산성 및 피용자보수 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증가율과 임금상승률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2009년의 명목임금 또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난 점은 2010년 임금상승률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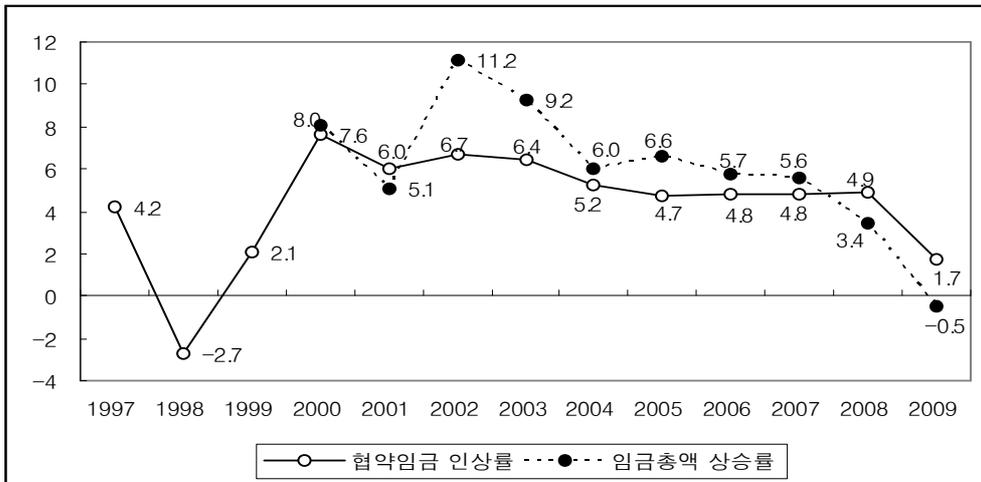
3. 2009년 노사간 협약임금 인상률도 대폭 낮아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루어진 임금교섭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노동부의 ‘협약임금 인상률’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1.7%로 나타나 전년인 2008년의 4.9%보다 대폭 하락하였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특별급여 등 변동성 급여가 제외되고 정액급여 등의 고정성 급여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조사 결과 나타난 ‘임금총액 상승률’보다 연도간 변동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2.23 노사민정 합의’ 등 연초부터 시작된 노사간 임금인상 자제 움직임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협약임금 인상률이 전년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일반적으로 승진에 따른 인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2) 임금총액 상승률은 5인 이상 상용직 기준임.

자료: e-나라지표, www.index.go.kr

II. 2009년 부문별 임금동향

1.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임금상승률 대폭 하락

산업별 임금상승률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5.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 밖에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임금하락폭이 컸던 반면, 운수업, 통신업 등에서는 양(+)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제조업 임금상승률은 전산업 평균(-0.7%)과 비슷한 -0.6%를 기록하였다.

2. 대규모 사업체에서 임금하락률 높아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2.4%로 가장 낮았으며 5~9인 -0.6%, 10~29인 -0.4%, 100~299인 -0.4%로 나타났다. 한편 30~99인 규모는 다른 규모와 다르게 2.0%의 양(+)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표 3> 산업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2007	2008	2009
전 산업	2,561 (-)	2,640 (3.1)	2,622 (-0.7)
제조업	2,662 (-)	2,679 (0.6)	2,664 (-0.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872 (-)	3,953 (2.1)	3,898 (-1.4)
건설업	2,320 (-)	2,477 (6.8)	2,336 (-5.7)
도·소매업	2,605 (-)	2,779 (6.7)	2,798 (0.7)
숙박 및 음식점업	1,727 (-)	1,825 (5.7)	1,820 (-0.2)
운수업	2,224 (-)	2,307 (3.7)	2,340 (1.4)
통신업	3,676 (-)	3,592 (-2.3)	3,659 (1.9)
금융 및 보험업	3,646 (-)	3,722 (2.1)	3,542 (-4.8)
부동산 및 임대업	1,713 (-)	1,858 (8.4)	1,833 (-1.3)
사업서비스업	2,319 (-)	2,547 (9.8)	2,506 (-1.6)
교육서비스업	2,716 (-)	2,733 (0.6)	2,629 (-3.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491 (-)	2,550 (2.4)	2,513 (-1.4)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	2,296 (-)	2,430 (5.8)	2,414 (-0.7)
기타 서비스업	2,150 (-)	2,208 (2.7)	2,206 (-0.1)

주: 1)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에 따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기준으로 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전년대비 소폭 축소되었다(표 4 참조).

<표 4> 규모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300인 이상=100.0)

	2007년 평균		2008년 평균		2009년 평균	
	평균	격차	평균	격차	평균	격차
전규모	2,561 (-)	[85.2]	2,640 (3.1)	[84.5]	2,622 (-0.7)	[86.0]
5~9인	1,813 (-)	[60.4]	1,945 (7.3)	[62.3]	1,932 (-0.6)	[63.4]
10~29인	2,109 (-)	[70.2]	2,195 (4.1)	[70.3]	2,187 (-0.4)	[71.7]
30~99인	2,310 (-)	[76.9]	2,442 (5.7)	[78.2]	2,492 (2.0)	[81.7]
100~299인	2,396 (-)	[79.8]	2,529 (5.5)	[81.0]	2,519 (-0.4)	[82.6]
300인 이상	3,004 (-)	[100.0]	3,124 (4.0)	[100.0]	3,050 (-2.4)	[100.0]

주: 1)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

3. 임시·일용직의 임금하락 두드러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별 임금추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2009년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419천 원으로 전년대비 0.4% 상승한 반면, 임시직의 월평균 임금은 1,170천 원으로 전년대비 3.5% 하락하였고 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858천 원으로 전년대비 2.0%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임시·일용직의 하락폭이 컸다.

한편 상용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임시직과 일용직의 임금수준은 전년인 2008년의 50.3, 36.3에서 2009년에는 각각 48.4, 35.5를 기록하여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임금격차를 기록하였다.

<표 5> 종사상 지위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상용직	임시직	격차		
			(상용직=100)	일용직	(상용직=100)
2000	1,527 (-)	852 (-)	55.8	646 (-)	42.3
2001	1,649 (8.0)	916 (7.5)	55.6	689 (6.7)	41.8
2002	1,769 (7.3)	971 (5.9)	54.9	760 (10.3)	43.0
2003	1,958 (10.7)	1,032 (6.4)	52.7	759 (-0.2)	38.8
2004	2,036 (4.0)	1,080 (4.6)	53.0	779 (2.6)	38.2
2005	2,117 (3.9)	1,102 (2.0)	52.1	783 (0.6)	37.0
2006	2,184 (3.2)	1,139 (3.4)	52.2	814 (4.0)	37.3
2007	2,299 (5.3)	1,163 (2.1)	50.6	823 (1.1)	35.8
2008	2,409 (4.8)	1,212 (4.2)	50.3	875 (6.3)	36.3
2009	2,419 (0.4)	1,170 (-3.5)	48.4	858 (-2.0)	35.5

주: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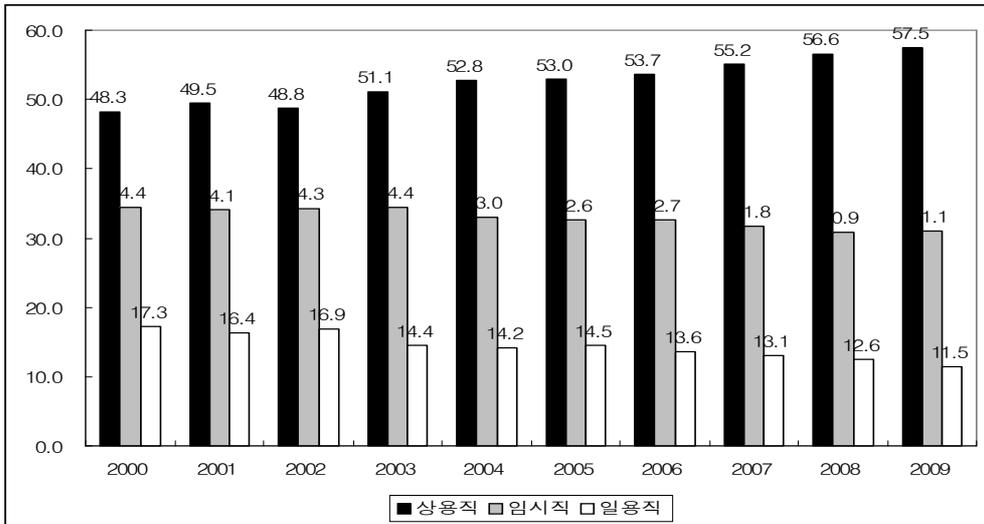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년도.

4. 상용직 비중의 증가로 평균임금의 급격한 하락이 완화

일반적인 평균임금 상승률 통계는 임금을 근로자수로 기중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 상승률 안에는 순수임금 상승분과 근로자 구성비중 변화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순수한 임금수준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석기간 중에 근로자 구성이 변화되면 평균임금은 변화하게 된다.

[그림 4]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임시·일용직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는 반면,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근로자 구성의 변화가 평균 임금 상승률에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영향으로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6> 평균임금 상승률 분해결과

(단위: %)

연도	평균임금 상승률	순수임금 변화분	고용비중 변화분	잔차
2001	8.7	7.2	0.9	0.6
2002	6.7	6.7	-0.5	0.4
2003	10.7	8.1	1.9	0.7
2004	5.2	3.9	1.1	0.2
2005	3.3	3.2	0.0	0.1
2006	3.9	3.2	0.6	0.1
2007	5.4	4.1	1.1	0.2
2008	5.8	4.5	1.0	0.3
2009	0.3	-0.5	0.8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8월호를 이용하여 계산.

임시·일용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상용직 비중의 증가는 전체 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의 검증을 위해 ‘평균임금 상승률=순수임금 변화분+고용비중 변화분+잔차’로 분해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²⁾

이 표에서 보듯이 2001년 이후 상용직 증가로 인한 고용비중 변화는 평균임금 상승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9년의 경우 순수임금 변화분은 0.5% 하락하였지만 고용비중 변화분이 0.8% 상승함으로써 이를 상쇄해 결과적으로 전체 평균임금이 0.3%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다.

III. 2010년 임금상승률 전망

1. 2010년 경영계의 임금인상 제시율과 노동계의 요구율 격차가 매우 커

2010년도 노동계의 임금상승 요구율을 보면, 한국노총의 경우 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2009년도에 후퇴한 임금에 대한 보상 등의 이유로 정규직은 9.5%, 비정규직은 20.2%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민주노총은 생계비 및 근로시간 격차해소 등을 감안하여 정규직은 9.2%, 비정규직은 29.8%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반면 경영계(경총)는 기업의 임금인상 여력부족, 해외경제 불안요인을 비롯한 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등을 이유로 2010년 임금동결을 제시하였다(표 7 참조).

이와 같은 노사간의 경제전망과 임금인상폭에 대한 시각차는 매년 존재하였지만 2010년에는 특히 그 격차가 예년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임금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국민경제생산성에 기초한 2010년 임금인상률은 6.6%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에 조응하는 임금상승률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도출된다.

$$\text{임금인상률} = \text{실질경제성장률} + \text{소비자물가상승률} - \text{취업자 증가율}^3)$$

2) 자세한 분해식 도출과정은 <부록>에 기술하였다.

3) 국민경제생산성에 기초한 임금인상률 도출과정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07년 4월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7> 경영계의 제시율과 노동계의 요구율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경영계(경총)	노동계		명목임금 상승률
		한국노총	민주노총	
1997	0.0	11.2	10.6	7.0
1998	-25.0	4.7	7.2	-2.5
1999	0.0	5.5	7.7	12.1
2000	5.4	13.2	15.2	8.0
2001	3.5	12.0	12.7	5.1
2002	4.1	12.3	12.5	11.2
2003	4.3	11.4	11.1	9.2
2004	3.8	10.7	10.5	6.0
2005	3.9	9.4	9.3	6.6
2006	2.6	9.6	9.1	5.7
2007	2.4	9.3	9.0	5.6
2008	2.6	9.1	8.0	3.1
2009	-	-	-	-0.7
2010	0.0	9.5	9.2	-

- 주: 1) 1999년 경총은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은 동결, 진행중인 기업은 임금삭감을 제시함.
- 2) 2004년 경총은 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300인 미만 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함.
- 3) 2005년 경총은 1,0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1,000인 미만 기업은 3.9% 인상을 제시함.
- 4) 2006년 경총은 수익성 저하 기업과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6% 인상을 제시함.
- 5) 2007년 경총은 대졸 초임 및 고임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4% 인상을 제시함.
- 6) 2009년도는 '2.23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노사가 요구율 및 제시율을 발표하지 않음.
- 7) 2005년도부터 노동계 요구율은 정규직 요구율을 기준으로 함.
- 8) 명목임금 상승률은 2007년까지는 상용직, 2008년 이후는 전체 근로자 대상임.

자료: 한국경총·한국노총·민주노총 및 노동부 발표자료, 각년도.

이와 같은 산식을 통해 2010년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을 계산하여 보면, 경제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4.6%)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한국은행, 2.8%) 그리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0.8%)를 적용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약 6.6%의 임금인상률이 계산된다.4)

3.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임금상승률은 5.0% 상승할 것으로 전망

2010년 임금상승률은 경기회복과 전년도 임금상승률 하락에 대한 반등효과로 인해 상승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임금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여기서는 한국은행과 한국노동연구원의 2009년 12월 및 2010년 1월의 전망결과를 사용하였는데, 어떤 전망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8〉 주요 기관의 2010년 경제전망

(단위: %)

	경제성장률(실질)		소비자물가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2009	2010년 전망치	2009	2010년 전망치	2009	2010년 전망치
한국은행 (2009. 12)	0.2	4.6	2.8	2.8	-0.3	0.7
KDI (2009. 11)		5.5		2.7		-
LG경제연구소 (2009. 9)		4.2		2.7		-
삼성경제연구소 (2009. 11)		4.3		2.9		-
한국경제연구원 (2009. 10)		3.2		3.0		-
한국노동연구원 (2010. 2)		-		-		0.8

국내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 등 내수 관련 지표들과 대외거래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전년인 2009년보다 높은 4.6%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한국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한국은행),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의 하락세에서 2010년에는 경기회복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상승국면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노동연구원). 한편 실질GDP 전망치를 취업자 전망치로 나누어 실질노동생산성 전망치를 계산하여 보면, 2010년에는 2009년의 0.5%보다 높아진 3.8%의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예상된다.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임금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2010년 전망은 전반적으로 전년인 2009년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임금상승률을 전망하기 위해서 1987년 이후 과거 연도별 실적치(1987~2009년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임금은 장기적으로 실질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증가율,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 그리고 실업률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추정할 결과 2010년에는 경기회복 및 생산성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간 5.0%의 임금상승률이 전망된다. **KLI**

<부 록>

고용형태별 구성의 변화가 전체 평균임금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⁵⁾

우선, 노동시장에 n 개의 고용형태가 있으며, 고용형태 각각의 임금수준을 W_i , 고용수준을 E_i 라고 하자. 그러면 일정시점에서 전체의 평균임금은 식 (1)과 같이 도출된다.

$$W = \frac{\sum_{i=1}^n W_i \cdot E_i}{\sum_{i=1}^n E_i} = \sum_{i=1}^n W_i \cdot e_i \dots\dots\dots (1)$$

즉 일정시점에서 경제 전체의 평균임금은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고용형태별 고용비중 e_i 으로 가중평균한 수치가 된다. 이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간의 평균임금 변화분을 ΔW 라고 하면 임금상승률 \dot{W} 는 식 (1)을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고 이를 기준시점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나눈 식 (2)와 같이 도출된다.

$$\begin{aligned} \dot{W} &= \frac{\Delta W}{W} \dots\dots\dots (2) \\ &= \frac{\sum_{i=1}^n \Delta W_i \cdot e_i}{W} + \frac{\sum_{i=1}^n W_i \cdot \Delta e_i}{W} \\ &= \sum_{i=1}^n \frac{\Delta W_i}{W} \cdot e_i + \sum_{i=1}^n \frac{W_i}{W} \cdot \Delta e_i \end{aligned}$$

즉 경제 전체의 임금상승분은 순수한 임금상승분과 고용구성의 변화에 기인한 임금상승분으로 요인분해된다. 특히 식 (2)의 우변의 첫째 항은 개별 산업의 임금상승률의 변화 ΔW_i 가 경제 전체의 평균임금 상승률에 기여한 기여도, 둘째 항은 개별 산업의 고용구성의 변화 Δe_i 가 경제 전체의 평균임금 상승률에 기여한 기여도를 각각 나타낸다.

5) 평균임금 분해방법은 日本労働研究機構(1999), 『ラスパイレス賃金指數作成報告』, 日本労働研究機構 및 Ruser, J. W.(2001), "The Employment Cost Index: What Is It?", *Monthly Labor Review* 124(9) pp.3 ~ 21 등을 참조하였다.